

## 대법, 쌍용차지부 파업 진압 국가폭력 인정

경찰 과잉진압 위법·서울고법 파기 환송...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 취하하라”

대법원이 국가가 노동자에게 저지른 국가폭력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리해고 철회 77일 옥쇄파업 13년, 2심 선고 후 6년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대법원은 11월 30일 14시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파업 농성 무력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척한 행위와 하강풍을 이용한 진압에 대해 “경찰이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해 적법한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고 판결했다.

경찰특공대를 공장 옥상에 투입하는 등 과정에서 발생한 기중기 손상 책임에 대해서도 “피고의 책임을 크게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판단했다. 노동자 파업을 무력을 이용해 과잉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셈이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헬기 투입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 ▲노동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 인정 범위에 포함하



는 것은 위법 ▲기중기 손상으로 가동 못 해 발생한 업체의 휴업손해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서 빠져야 함 ▲기중기 손상에 대한 손해 책임 비율 80%는 너무 높으니 고법에서 비율 재검토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SNS에 “이겼다. 2009년 국가폭력 목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경찰 스스로 취하해 13년이라는 길고 긴 갈등의 시간을 끝맺음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라고 일갈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혼까지 파괴했던 13년간의 사슬이 끊어졌다. 아팠던 시간이 스쳐 갔다. 따뜻한 연대의 온기가 느껴진다. 우리가 옳았다. 노동자의 저항을 짓밟았던 권력의 횡포가 부당했음을 판결했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9년 파업 농성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헬기와 대여 기중기

등이 망가졌다며 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노조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을 인정하면서 노동자 측이 국가에 1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법정이자자가 붙어 배상액은 30억 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지난 2019년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이 직접 머리 숙여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판결을 보자면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 라며 “국가는 하루빨리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를 철회해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챙기라” 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파업을 손해·가압류로 보복하는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고 대결로 치닫겠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보내는 충고다” 라고 경고했다.

# 윤장혁 위원장 · 조선훈청지회 노조법 개정 단식투쟁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피해노동자 기자회견 ... 금속, 12월 5일~6일~7일 국회 집중 농성투쟁



“진짜 사장 책임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손배 폭탄 금지법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 잡는 국민의 힘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회기 내 처리하라.”

체감온도 -10℃ 아래로 내려간 차가운 서울의 공기를 노조법 개정 투쟁구호가 갈랐다.

11월 30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택배노조 등은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피해당사자 단식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 원청이 470억 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청구했다. 과연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인가” 라면서 “자본은 대대손

손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라고 규탄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자본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3,160억 원을 청구했다.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렀다” 라며 “이번 투쟁으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한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단식에 나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법 피해당사자인 유취안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훈청지회 부지회장은 단식 결의 발언을 통해 “조선훈청지회가 지난 7월 22일 파업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였다면,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고민을 했다” 라면서 “산 것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 돼버린 세상이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유취안 부지회장은 “하청·비정

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가는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이 필요하다” 라며 “이 투쟁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함께해야 하고, 양경수 위원장 동지도 결단을 내려 단식농성장에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 라고 당부했다.

이날 같은 시간 정의당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국회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12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11월 30일부터 위원장 단식농성 ▲11월 30일부터 국회 상황 종료 시까지 임원·사무처·지부 농성(지부는 12월 8일부터) ▲12월 3일 노조법 2·3조 개정 전국노동자대회 ▲12월 5일~8일 지부장 농성투쟁 ▲12월 5일~6일 간접고용·비정규단위 집중 농성투쟁 ▲12월 6일~7일 지부장·지회장·분회장 집중 농성투쟁 등 투쟁 전술을 결정했다.

# 미래차 생산 주역, 일진하이솔루스지회가 났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출범 ... “살기 위해 지회로 모였다”

“금속노조로 단결하여 당당하게 살아보자.” 사람 죽이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인간다운 일터 만들기에 나섰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가 11월 28일 완주공장에서 설립 보고대회를 열고 지회 출범을 선포했다.

이날 설립 보고대회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금속노조 전북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간부, 조합원들이 참석해 지회의 힘찬 출발을 함께 했다.

유휴창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진하이솔루스지회장은 보고대회에서 “일진하이솔루스 모든 노동자에게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다”라며 투쟁사를 시작했다.

유휴창 지회장은 “우리는 사측에 떼쓰려 모이지 않았다. 살기 위해 모였다.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 과로사 기준에 해당하는 초장시간 노동, 여차하면 다치는 현장, 다쳐도 쉬지 못하는 현장을 바꾸기 위해 모였다”라고 선언했다.

유휴창 지회장은 “고객사를 핑계로 노동자를 부품 취급하며, 부당한 인사평가제도로 줄 세우는 일진하이솔루스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깃발 아래에서 바꾸겠다”라면서 “노동자와 회사가 노동의 성과를 대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지회 출범 결의를 밝혔다.

유준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사측은 노동자들이 지회를 만들자 노

조의 대화 요구를 듣기는커녕 탄압하려 했다.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은 탄압을 뚫고 노조를 결성했다”라고 보고했다.

유준 지부장은 “지회는 11월 25일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사측은 아무 답변이 없다”라며 “사측은 당장 교섭에 나오고 일진하이솔루스지회를 인정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주완주협의회 의장인 서영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의장은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라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투쟁한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 일진하이솔루스 동지들이 가는 길에 함께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세계 1위 수소탱크 생산회사다.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넥쏘와 수소 버스, 수소 트럭에 탑재하는 수소탱크를 생산하고 있다.

일진하이솔루스는 기존 3조 2교대에서 2조 2교대로 근무제도를 변경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2조 2교대로 전환하면서 토요일 특근 없이 주5일만 일하자며 반강제로 노동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다. 거짓이었다. 사측은 2조 2교대 전환 후에도 토요일 특근을 강요하고 있다. 사실상 주 72시간 근무를 강제한 셈이다.



일진하이솔루스는 초장시간 맞고 대 강요도 모자라 상식 이하의 지시로 안전사고를 내고 있다. 지게차 지게 발에 팔레트를 끼워 노동자를 올려놓고 천장 청소를 시키다 노동자가 추락사고를 당하는 산업재해가 벌어졌다.

한국의 미래먹거리라는 미래차 정책의 두 축 중 하나인 수소차 생산 공정에서 수소탱크 생산이라는 핵심 공정을 맡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수십 년 전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불케 하는 역설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은 2022년 6월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여러 달 동안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상담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찾았고,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쳐 현장과 삶을 개선하겠다는 결의를 세웠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할 거로 보이는 지회는 노조 가입 선전전을 지속해서 벌여 일진하이솔루스 생산직과 사무직 모든 노동자를 지회로 조직할 계획이다. 지회는 현장의 요구를 종합해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